

전국 아마 바둑동호인 전주서 반상 대결

22~23일 '이창호배' 개최

전국의 아마추어 바둑동호인들이 전주에서 반상(飯上)의 대결을 벌인다. '이창호배 전국 아마바둑 선수권대회'가 오는 22~23일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창호 사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

회는 전주 출신인 이 9단을 기리고 우수한 바둑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대국은 ▲아마 최강부(주니어·시니어) ▲청소년부(중·고등학생) ▲어린이부 등으로 진행된다. 이창호 9단은 대회기간 현장에서 지도 대국과 팬 사인회를 열 예정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시립박물관, 유물 기증자에 감사패

정읍 시립박물관은 지난 1일 '정읍시민의 날'을 맞아 김진수 씨와 이순철 씨 등 유물 기증자에게 감사패와 기증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6일 정읍 시립박물관에 따르면 기증 유물은 청동기시대 돌도끼와 일제강점기 '필야정시지'(必也亭誌) 등 모두 4건 69점이다. 정읍출신인 김진수 씨는 광주 등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심학 박승우, 박경 송 계열, 경암 김상필, 남농 허근 등 작가들의 문인화와 서예, 병풍 등을 꾸준히 수집해왔으며, 모두 57점을 기증했다. 또 고 박영만씨는 돌도끼와 분청자기·백자를, 이순철씨는 일제 이항 선생

의 문집인 '일재 이선생 문집'을 기증했다. '필야정시지'는 1936년 호남 4군 연합 공술경회가 주관한 국공대회에서 참가자 이름과 경기성적을 기록한 한지를 길게 이어 붙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통 스포츠로서의 국공의 진행 방법과 기록 방식에 대한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 특별전과 일부 상설전시를 통해 기증된 100여 점의 유물의 가치를 조명하고 기증자의 높은 뜻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완공 눈앞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순창군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순창군은 서부권(북흥면, 쌍치면, 구림면)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2월 말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농기계 임대대를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우등면에 임대 사업소 분소를 설치해 농민들의 농작업에 큰 도움을 줬다. 하지만 북흥면과 쌍

치면, 구림면 등 서부권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해당 농업인들의 분소 설치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군은 국비 5억원 등 총 11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 농기계 32기종 141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군은 기존에 운영중인 임대사업소 분소 농기계를 포함해 퇴비살포기, 고추세척기, 관리기, 원반쟁기 등 총 45기종 512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제공하게 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이구연 소장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면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북흥과 쌍치, 구림면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새들이 주인공” 군산 철새축제 확 바뀐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 14~16일 금강 일원

소음 유발 공연 없애고 친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마련 안식처 조성·해설 있는 ‘탐조투어’... “원색 옷 삼가하길”

즐방, 새 패레이드, ‘새가 되어 날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올해 축제는 기존 관(官) 위주 행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민 축제로 거듭난다. 나포면 주민들은 철새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수확한 논에 벼짖을 깔고 물을 담아 새들의 안식처를 조성하는 등 철새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역시 ‘탐조 투어’이다. 탐조투어는 도보여행과 자전거 여행, 버스여행 3개의 코스로 진행된다. 탐조투어는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해

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금강의 철새들을 직접 눈앞에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말 탐조투어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이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행사장 주변 근접거리 철새 관찰소 운영과 함께 사랑의 십자들 먹이주기 체험, 철새와 함께하는 관광투어 여행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군산시는 금강을 찾는 철새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철새들의 편안한 안식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나포면 십자들 금강제방에 500m

의 가림막을 설치해 자전거나 새를 관찰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에 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나포면 십자들 등지 450ha에 벼짖을 깔고 무논을 만들고, 금강 습지공원 인근에 갈대·억새 군락지와 ‘대나무 인공섬’을 조성해 철새들의 월동을 돕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새들은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므로 눈에 튀는 원색의 의복을 피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새에 대해 배우고, 새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워 돌아가는 의미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하구는 천수만, 주남저수지와 함께 ‘3대 철새도래지’ 손꼽힌다. 매년 10월 하순부터 가창오리를 비롯해 큰고니, 청둥오리 등 수십 종의 철새들이 찾고 있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관광은 전남”

도,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9~9일 고양 일산서 개최

전남도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린다. 2014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에는 전 세계 33개국의 200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495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박람회 기간 동안 국내외 관람객 7만5000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 전남관광(주)과 공동 운영하는 전남 통합 관광홍보관은 대형 멀티비전을 통한 전남도 관광 홍보영상 상영, 전남관광 광 카페 가입, 플랫폼 이벤트를 통한 남도특산물,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상품권 증정 등에 나선다. 특히 전남도내 유명한 단풍, 갈대 관광지, 해남·해미가 명소, 온천 등 계절 관광지와 맛갈스런 남도음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심신의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남도로의 여행 욕구를 자극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 계절적 여건 변화로 오는 11월부터 운행 노선이 개편되는 전남관광기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도 집중 홍보한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는 힐링 관광의 최적지”라며 “전국민이 가을 남도를 찾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



공공비축미 수매 한창

6일 담양을 양각리 중앙창고에서 2014년산 공공비축미 포대비 수매작업이 한창이다. 담양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포대비 18만7614포와 산물비 9001포 등 총 19만6615포(7865t)의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매입할 계획이다. <담양군 제공>

전남도 “광주U대회 적극 협조”

도내 경기장 개보수·진입도로 개설

전남도가 세계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도내 경기장 개·보수 및 진입도로 개설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015 광주 하계 U대회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장 38개소 가운데(훈련시설 제외)

전남 소재 경기장은 17곳이다. 전남도는 경기장 관리 운영과 대회 홍보, 문화행사, 위생 및 방역, 숙박, 교통분야 등 11개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광주 U대회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나주시 안장동에 위치한 전남 종합사격장의 경우 전남도와 광주시가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내년 5월에 준공되면 최신 시설을 갖춘 국제 종합사격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도 1호선에서 사격장까지 진입도로도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함에 따라 U대회 개최시 선수 및 관람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함께 경기장이 소재한 나주, 목포, 무안 등 9개 시·군도 도로 시설물 정비,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 거리 조형물 설치 등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있다. 2015년 광주 하계 U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전 세계 170여 개국 대학생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매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형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

“땅” 구매

공장부지 “땅” 구매